

구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

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은 1927년에 건설되어 2002년까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. 영업 종료 후에 보수되어 2016년에 미술관으로 개관되었습니다. 과거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은행의 일부에도 입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개방적인 영업실의 전시물을 통해서도 이로나이 은행가가 발전해 온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.

지하에는 대여 금고실이 있고, 타일로 된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회랑에는 배수용 수로가 깔려 있어 여름에 차가운 지하실 벽에 생기는 결로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

이 건물은 14세기에서 15세기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저택에서 영감을 얻은 이탈리아안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이며, 소네 다쓰조(1853년~1937년)가 설계했습니다. 소네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교훈을 바탕으로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했습니다.

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은 20세기 초 오타루에 있던 25개 은행 중 한 곳으로 오타루의 재력을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. 소네 씨는 1912년에 일본은행 오타루 지점을 설계한 다쓰노 긴고(1854년~1919년)의 동급생이었습니다. 미쓰이 은행 오타루 지점의 건물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, 오타루 예술촌의 일부로 건물 내부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.